

고엽제 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청 원 인 : 조남인(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0-1)외 146명
- 나. 소개의원 : 박 병 화 의원
- 다. 접수일자 : 2005년 7월 28일
- 라. 회부일자 : 2005년 7월 28일
- 마.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사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9월 8일)
 -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국가의 부름을 받아 조국의 발전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월남 참전군인들 중 그 당시 무차별하게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각종 암, 신경계 손상, 기형유발, 독성 유전 등의 나타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엽제 전우회원분들에 대해 풍토병으로만 알고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별다른 대처도 없이 살아오다 지금에 와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나 보상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 따라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 전장에서 젊음과 목숨을 바친 월남 참전용사 고엽제 전우회 여러분들이 삶의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약간이나마 보탬이 되고 보상 차원에서 복지회관 건립과 시 보조금에 대한 인상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함.

3. 취지 설명요지(취지설명 : 박병화 의원)

- 1960년대에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의 발전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으나 그 결과는 그 당시 무차별하게 살포된 고엽제가 몸속에 축적되어 10~25년이 지난 후에 각종 암, 신경계 손상, 기형유발, 독성 유전 등의 나타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 이분들은 눈, 코, 입 피부 등을 통해 아무런 여과없이 고엽제가 전신에 축적된 채 임무를 마치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적을 섬멸하기 위하여 뿌렸던 고엽제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온갖 고통을 안겨가며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장애와 죽음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의 풍토병으로만 알고 별다른 대처 없이 살아오다 지금에 와서는 그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보상 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 떠나면 타국에서 젊음과 목숨을 바친 월남 참전용사 고엽제 전우회 여러분들이 삶의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보상 차원에서 복지회관 건립과 시 보조금에 대한 인상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고엽제 회원 650명으로 증가되었는데 고엽제 환자로 진단이 나온 분들인지 월남 참전 용사들도 포함 되어 있는 건지?	○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고엽제 후 유의증으로 판단되었을 때 들어 오게 됩니다.
○ 고엽제전우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타 단체에 비해 많다고 보는데?	○ 타단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위인데 운영비면에서 미흡한 부분은 내년 예산반영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 고엽제 환자를 판단하는 특정기관이 지정되어 있는지?	○ 고엽제 환자를 판단하는 특정기관은 정확히 알아본 바 없으나 치료는 보훈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용인시, 안양시, 성남시 등 부천시보다 많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사업비와 운영비에서 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차액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른 단체에서도 보조금 인상요구를 하면 시에서 대응 대책 있는지?	○ 보훈단체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을 보훈회관에 마련할 수는 없는지?	○ 현재 보훈회관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군 관련 단체를 위해 보훈회관을 증축이나 신축을 고려해볼 생각은 있는지?	○ 장기적으로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고엽제전우회 뿐만아니라 타 단체들도 포함해서 타시에 비해 보조금이 부족한면이 있다고 보는데 인상해줄 용의가 있는지?	○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심사결과

-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 고엽제 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 의견서 1부.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청 원 의 건 서

의안 번호	제418호
----------	-------

부천시의회

안건명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		
청 원 인	주소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0-1번지	
	성 명	조남인 등 146인	
소개의원	박병화 의원		
제출년월일	2005. 7. 28	처리년월일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5. 9. 9)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의견

부천시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항의 규정을 근거로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보훈 및 군 관련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로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 사무실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2에 의거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소유의 향군회관에 입주해 있으며, 그 외 군 관련 단체들은 임대 및 가설건축물에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를 비롯한 보훈 및 군 관련단체 중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지원되는 보조금은 단체를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무실 확보와 후생복지를 위하여 향후 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한 부천시의 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단체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이 추후 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람.

2005년 9월 9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청원 소개의견서

청원건명	북지회관 건립 및 시보조금 인상		
청원인	주소	북지 오정아원동 230-1	
	성명	조남인 	민등록번호
소개의원	박병호 		
소개년월일	2011. 1. 28		

▶ 소개의견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의 수호를 맡았을 위하여 열심히 싸웠으나 결과는 고엽제의 무차별한 살포에 의하여 몸속에 축적되어 10~25년이 지난후에 각종 암, 신경계 손상, 기형유발, 독성유전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본떠 매우 가슴아리 안타깝게 생각하며

베트남 전선에서 고엽제 사용에 관한 특별권 저서나 주의사항이 있었다면 이같이 고통은 최소화 할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픈 마음을 같이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여 인지기 조국수호와 근대화를 위하여 젊음을 바친 이들의 눈, 코, 입, 귀 등등 통해 아무런 여과없이 고엽제가 전신에 축적된채 있어 마치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 왔으나 작은 심연하기 위하여 뿌려진 고엽제 부메랑이 되어 병첩 사진과 같이 우리 노병은 물론 그들 가족까지 고통의 죽음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1978년경부터 미국에서는 고엽제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미의회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미국 정계를 떠들썩하게 했으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황재용사들은 베트남 풍토병으로만 안고 있었으며 국가에서도 정당한 유인 보상이나 보상등이 미흡하여야만 생각하며 이들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북지회관 건립과 보조금등을 인상하여주는 방안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되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

청 원 서

수신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참조 :

위원장님께

6.25사변 전쟁이후 폐허가 된나라 겨우 보리밥도 못먹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무신도 못신어 보던 시절을 월남에 가서 전쟁하면서 정글화를 신어 보았습니다.

상상도 못해본 시레이손을 먹어 보았지요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 하지 았았던 것은 우리의 죽음으로 조국 근대화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싸워서라도 조국근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젊음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때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라일을하고 계시는 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을 모르는척 외면하는 모습을 볼때가 있습니다. 같이 가슴아파해 주셔야 할분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분들께 공로비를 내려야 될 것이며 새로운 삶을 열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고엽제 회원이 10만에 가까운 인원이다보니 나라경제도 생각 안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젊은 미래꿈나무들이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는 실정에 맞지않게 정치는 후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 실망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속에 고엽제 전우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고 있는 자식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스런 젖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방긋웃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맑은 눈동자로 보면서 젖을 먹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무상한 것이라고들 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아서 남에게 사랑을 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봉사 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이 고엽제 단체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는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립식 건물에서 그것도 쥐구멍이 뚫려 쥐가 왔다갔다하는 데서 업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고엽제 유공자 환자분들의 쉼터복지회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신다면 고엽제 환자를 위한 쉼터가 있으므로 일 자리 창출은 자연적으로 창출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 되리라 믿어봅니다.

부천시민은 새로운 개혁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배불리 먹는자와 배고픈자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부른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배고픈 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며 발전입니다.

잘사는 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부천시는 주민이 바라는 정책이 이루어 지는 시라고 봅니다.

새로운 시정을 원하며 시민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거울삼아 잘 된 것은 살려서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엽제 전우회원은 이런 복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1. 복지회관 건립 : 고엽제 유공자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단체로 응급실, 진료실, 식당, 관리사무실, 한자교실, 수지침교실, 서예실, 건강스포츠교실, 고엽제사진전시관, 월남전쟁홍보사진실, 등 역사에 길이 빛나는 자손들에게 좋은 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시보조금 인상 : 2001년 320여명 회원에서 2005년 현재 650여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원증가에 대한 시 보조금을 인상조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용인시에서는 3천6백만원의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최고의 좋은 공원안에 고엽제 환자 쉼터로 건물을 건축하여 주겠다는
합의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저희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주시기 바라며 적극 검토하
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부로 저의 고엽제 650여명의 회원중 1차로 145명이 서명에 동참했습
니다. 전 회원이 간절히 소망하는 고엽제 복지회관 건립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길 다시한번 위원장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2005. 07. 26

사)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경기도지부

부천시회

